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9월 23일 (제96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2018년 9월 18일 수도권 교역자세미나(본부 강의실)

9월 18일, 이태원에 위치한 교회 본부 강의실에서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한 총회장 목사님의 교육이 있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에 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눅4:43).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고전1:17)고 말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이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피곤치 않고 신바람이 난다. 나는 오늘 영혼구원을 위한 목회자의 행동지침을 말하려고 한다.

첫째, 자기 합리화를 버려야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무능함이나 내태함, 거짓, 죄악을 변명으로 일관하며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속아줘야지! 고름이 살이 되지 않더라. 나쁜 타성을 잘라내고 대신 노력과 열정을 소유해야 성장, 발전할 수 있다(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야 하지 않으셨느냐?).

둘째, 혁신(革新)이란 뜻은 잘못된 관행, 습관, 사고방식,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 단체, 교회, 사회의 암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러했는데 뭘 어쩔란 말이야?’ 하는 자세, 잘라버려라. 이는 자기를 퇴보시키고 매장시키

는 길일뿐이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세상이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자신만이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누가 혁신을 두려워했는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의 개혁의 외침을 눈 부릅뜨고 반대하며 죽이지 않았느냐? 오늘날 교회, 사회 기독교 세력이 고착된 사고로 일관하고 있으니 교회나 사회가 낙후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보다 나은 자, 지금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배척하는 자는 나 자신을 퇴보시키고 상대를 적으로 만들 뿐이다. 셋째, 진화 속에 평등은 없다. 이는 만고의 진리다. 앞으로 더욱 극심한 양극화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역사적 증거요, 성경도 증거 하지 않느냐.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줬다. 그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 더욱 뛰고 달리고 변화를 두려워 말고 대처하라.

넷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변화에 대처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는 역사적으로나 동물의 세계를 봐도 입증되지 않는다. 적응하지 못하면 죽음뿐이다. 요즘 고령화 사회와 젊은이의 초스피드 생각에 대처하지 못하는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지나친 설득은 자신의 이론과 주장을 상대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리와 복음은 장엄한 선포이기 때문에 지나친 부연설명은 금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울무에 걸릴 수가 있고, 상대를 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마귀와 귀신은 그것을 노린다. 또한 위트는 허용되나 농담은 안 된다. 왜냐면 주의 종이 농담하면 ‘어? 그거 농담이구나.’ 하고 신뢰를 잃게 되는 오류를 낳게 된다.

여섯째, 기회와 기적, 축복, 지혜의 친구는 준비한 자라 말하더라. 행운 역시 물어보니 실력 있는 자 편에 선다 하더라. 실력은 준비한 자의 자신감이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상대의 마음의 정보를 입수하며 운동함으로 육체도 정비해야 한다(체력이 영력이다).

일곱째, 성공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행6:4). 또한 양 떼를 돌보는데 집중해야 한다(잠27:23). 유혹이란 집중력이 떨어질 때 나는 사고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인격의 척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덟째, 맛있는 스프가 뜨겁기만 하면 누가 먹겠는가? 설교, 능력, 지식, 인격도 못 갖춘 자가 화만 내고 막말이나 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누가 가겠나. 야단만 치는 무식한 아빠보다 사랑과 이해로 보듬어주는 엄마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특별히 사람에게 인기 있는 주의 종은 아침 안개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 인기가 있어야 한다. 존경을 받는 자는 상

대를 감동시키며 말 뿐이 아니라 분명한 업적이 결과로 나타나는 자다.

아홉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 명이다. 외모를 보지 말고, 빈 부귀천, 죄인, 의인을 가리지 말고 살리는 것이 명이다. 명이는 진맥 후에 일침으로 다스리듯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영적 명이가 돼야 한다.

열 번째, 사람을 얻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꿀을 얻겠다면서 벌통을 발로 차면 되겠느냐? 배운 자나 능력 있는 자일수록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감동을 시켜야 목숨을 걸고 돕는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목숨까지 거는 것이다.

열한 번째, 이타주의자가 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성장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과일을 많이 맺는 나무를 생각해라. 아래위로 무제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이기주의 같지만 결국 과일을 많이 맺어 남에게 주지 않느냐? 이기주의를 주창하는 것이 아니다. 남을 주려면 내가 먼저 힘이 있고 능력과 지식과 건강, 부귀가 있어야 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남에게 불을 붙일 수 있다.

열두 번째,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된 자들을 보라. 다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여 성취한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도우시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열세 번째, 스마트 시대의 장점을 이용해야 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교구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주소입력, 사진입력, 영상통화로 얼마든지 심방이 가능하다. 이것 역시 변화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부흥보다 영혼구원이 목적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마6:33). 이 뜻을 알아야 한다. 이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다는 뜻이다. 그러니 정신적 내태함을 버리고 변화를 두려워 말고 능력 받아서 전도하는 기쁨으로 살아보자.”

교육 후 맛있는 햄버거로 교제도 겸한 귀한 교육이었다.

기자 신도수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0:19~33)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우리 가문의 종손이고, 칠남매의 장남입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알고 난 후, 절대 제사는 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닐 뿐더러 더욱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귀신이고로 우리와 원수다.’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 때 가장 섭섭해 하고 황당해하신 분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에 분개했고,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냐?’며 대성통곡하셨습니다. 지금 대전교회 담임으로 있는 막냇동생인 이역사 목사가 그 때는 예수를 믿지 않은 때라 어머니의 통곡을 보고는 제게 달려들어 옆구리를 발로 차며, 제사상을 얹어버렸습니다. 왜 저라고 어머니가 그토록 통곡을 하시는데,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래도 저는 단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겠지만, 이번 추석에도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제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고전10:20).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건만 성경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란 불신자의 사후의 영, 곧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살았을 때야 할아버지요 할머니지만 믿지 않고 죽었으면 다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많이 우셨습니다. “그럼 니 아버지가 귀신이야?”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 귀신이 되었고, 실제로 저는 떠도는 영을 보았습니다. 그게 제일 역을 할 뿐입니다. 제가 조금만 빨리 예수를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만 어찌겠습니까?

미지근한 물에 대장군이 번식하듯 미지근한 신앙에 귀신만 들끓는다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이고, 귀신은 그 마귀의 쫓겨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고전10:22). 그러니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제사 지내라고 돈을 내는 것도 안 됩니다. 도둑놈들이 남의 집을 털 때 망을 보는 자나, 담을 넘는 자나, 장물을 내다 파는 자나 다 같은 도적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자나 제사음식을 만드는 자나 제사상에 돈을 대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분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파리퐁도 퐁인 겁니다. 그렇다고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말고, 명절인데 부모님 용돈도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임에 쓰는 돈을 구별하여 드리고, 음식도 구분해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외길입니다. 그 정해진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은 곧 신앙이 삼천포로 빠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삼십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 명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느브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쪽 같은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복하셨고, 주의 천사들을 급파하사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이 절대 약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신을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던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명절에 당신이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위경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지킨

믿음의 정절을 우리도 가정 내에서 지켜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라 함은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6)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시택 눈치 보지 마세요. 부모님 눈치 보지 말고, 남편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우 상 의 원 뜻은 ‘ 없는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한 꼴입니까?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일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증거판을 깨트려 버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屠戮)하라 하셨느니라”(출32:27)고 하였습니다. 우상숭배한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 모세의 말을 듣고 레위사람이 죽인 숫자는 3천 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각 사람이 그 형제 죽인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

리라”(출32:29).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단적으로 증명한 말씀입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건강과 재물을 아울러 얻은 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것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내게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왕상11:11).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후대에 나라가 찢기었고, 솔로몬의 군대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 지파를 규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꼭 이런 질문이 따릅니다. “당신은 조상도 없냐? 부모도 없냐?”고요. 저도 조상이 있고, 노모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진정한 효도는 제사상 높게 차리고 묘 크게 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효도는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때에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애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과연~’ 하고 인정하도록 말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행실로 인하여 당신이 단체에, 지역에, 가정에 선교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자 주님의 소망입니다. 제사 문제로 골머리 썩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당부컨대 절대, 절대 신앙에 타협은 없습니다. 즐거운 추석 맞으십시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죄 중에도 아무 일 없을 때

생선가게에 처음 들어가면 생선 비린내가 심하지만 조금 지나면 곧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을 코의 역치현상이라고 한다. 죄도 마찬가지다. 처음 죄를 가까이하거나 지을 때는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마음이 쿵광거리고 불안하다. 하지만 죄를 반복하다보면 어느덧 죄의식은 없어지고 쉽게 죄에 동화되어 죄 짓는 일을 태연하게 계속하게 된다. 죄의 역치현상에 이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에 더욱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게 되고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여서 하나님도 이 정도면 눈감아주신다고 생각하며 더욱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죄는 아무리 크고 무서운 죄를 짓더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짓값을 치러야 한다.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니까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해주시겠지', 혹은 하나님도 덮어주시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그러신 것일까? 시편 50편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리고 시편 50편 16절부터 각종 죄를 열거하셨다. 이런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다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분이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시다. 다만 기다리실 뿐이다.

죄를 깨닫고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분이다. 노아의 홍수 때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 온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 불로 태워버리셨다. 우상숭배를 밥 먹듯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 앗수르와 바벨론을 일으켜 진멸해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평생에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할 대상이다. 죄란 놈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 삶에 들어와 깊숙이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려는 놈이다. 죄는 깨닫는 순간 가차 없이 씹어 버려야 한다. 죄의 쾌감에 젖어 망설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분이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당신처럼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시다 지치시면 염증내고 얼굴을 돌리신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왕에게 악신이 와서 주인 노릇 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 냄새날 때 얼른 나와야 한다. 혹시 스스로 죄를 지었거든 오늘 이 글을 보고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죄에서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결단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도우신다.

지금 죄에서 나와라.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자.

이시대 목사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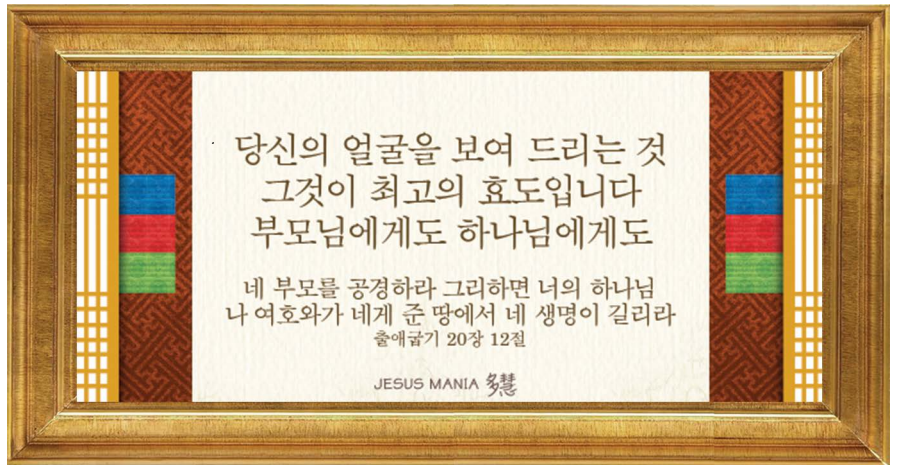
옛날 어느 임금의 병이 들자 내로라하는 의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고치지 못했다. 그때 한 현자가 찾아와서 '왕의 병을 고치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된다'고 말했다. 신하들은 전국을 헤매며 학자, 부자, 권세가 등을 찾아 '행복하냐?'고 물었으나 한 사람도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일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도 밝을 수가 없었다. 부부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묻자 "예! 행복합니다."라고 했다. 반가운 마음에 신하는 자초지종을 말하고 속옷을 벗어 달라 청하자 부부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한다. "우리는 가난해서 속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학식이나 재물, 권력에 있지 않다. 2018년 UN이 발표한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56개국 가운데 57위로 나타났다. 이유는 무엇인가? 기쁨과 만족이 없어서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성경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후6:~8)고 말씀하시며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교훈하신다.

행복은 소유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마5:3~10 공동번역)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소유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되시고, 도우시는 분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진정 행복한 자들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신33:29).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교단소식 ::

잔치 후에 도적 든다



광주예수중심교회 주일예배(2018년 9월 9일)

지난 9월 7, 8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광주전도집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2010년에 했던 장소보다 3배 크기로 집회 날짜를 두 번씩 변경하며 추진하였기에 광주교회 최권능 목사를 비롯한 광주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일당백의 자세로 기도와 전도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엄청난가만 한 다목적홀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첫날집회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교역자 및 성도들 수백 명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일각에서는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둘째 날은 어떻게 하나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둘째 날은 오히려 첫날보다 더 많

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하나님의 확장의 법칙이 실현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주일, 광주예수중심교회는 기존 출석 성도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 성전을 가득 메웠다. 이틀간의 천국잔치를 통해 은혜 받은 성도들이

광주교회로 몰려든 것이다. 목사님은 이미 집회 훨씬 이전부터 광주교회 성전을 옮길 장소를 알아보라고 행정목사에게 지시하셨다고 한다. 웃이 낄 만큼 자랐으니 더 큰 옷을 사주는 것은 아버지 몫이니 말이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웃은 아빠가 사줄게."

주일예배를 마치고 집회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담임목사는 오랜 시간을 집회준비에 매달리며 애써온 교역자들과 일꾼들에게 약간의 휴식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담임목사는 정신 차려라. 지금 이 많은 영혼들이 몰려왔는데 쉴 때가? 그물에 잡힌 고기들이 만전을 이뤘는데 이 시점에서 쉬었다가는 다 놓치고 만다. 기업의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뛰며 수주를 해왔으면 더욱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물건을 수주해놓고 쉬었다가는 그 기업 쫓딱 망하고 만다. 지금은 결코 쉴 때가 아니다. 새로 찾아온 영혼들을 일일이 찾아가 심방하며 관리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성전이 가득 찼으니 더 큰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담임목사야, 그런 사람은 쓰면 안 된다. 모두가 힘을 합쳐 밭줄을 당겨야 할 때, 주저앉아 쉬려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찌 줄다리기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옛말이 '잔치 끝난 뒤 도적 든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집주인을 비롯한 식솔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광주교회는 이틀간의 영적 잔치를 아주 잘 해내었다. 그러나 바로 이 때 이전 됐다 하며 쉬었다가는 마귀가 틈타 다 결판나고 만다. 더욱 깨어 기도하며 불을 환히 밝히고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그랬기에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나에게 대강, 대충이란 없다. 나는 편안하기를 거부한 사람이다. 왜? 바

로 그날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다. 우리는 직업이상의 사명을 가진 자다. 사명에 부도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92년 6월 7일 메인스타디움 집회 10만 명의 대역사를 이룬 바로 그날에도 목사님은 모든 교역자와 재직들을 전도단 본부로 불러 모아 기도시킨 분이다.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은 바로 이렇게 초고도로 집중된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다시 한 번 피곤한 몸을 일으켜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중심교단, 교회의 모든 교역자, 성도들이 되자.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떠돌아 다니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찌니라"(눅17:7~10).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28세쯤 되었는데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직장 다니면서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나 위주로 살며, 가고 싶으면 가고, 일 핑계로 세상에 빠져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제게 크나큰 환난의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장암을, 2016년에는 임파선 암을 선고 받고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작년 2017년에는 양쪽 폐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이 전이가 되었다며 폐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하는 믿음과 각오를 다짐하며 여기저기 기도원을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찾아왔는데, 저 분께 안수 받으면 병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잠들기 전까지 매일매일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 핸드폰을 끼고 살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병마가 찾아온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죄악 속에서 살았으니 죄인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들은 대로 ‘나에게도 귀신이 붙어서 병을 일으켰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며 “아~~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더러운 암 덩어리를 가지고 당장 나가!” 소리치면서 열심히 귀신을 쫓았지요. 아침저녁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6개월 정도를 매일 눈물콧물 범벅으로 방언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딸이잖아요. 저도 살려주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내 기도 들으신 주님, 어느 순간부터

배에 딱딱한 부위가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분들이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는 이단이라고 듣지 말라고 하였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면 이단인지 삼단인지 일단인지 아버지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수중심교회를 찾아서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교회분부와 연락이 되어 구로교구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예수중심교회로 다닌 지 벌써 2개월이 넘었네요. 지난여름 장성기도원에도 다녀왔는데 너무나 폭포수 같이 큰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픈 사람 단에 불러올려서 일일이 안수해 주시는데 제 차례가 되자 목사님께서 “암이 아니네, 다 나았어.” 하시는 거예요. 서둘러 돌아와 교구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비한 푸른빛이 성전을 휘감아 돌더니 제 몸속으로(복부 쪽) 빨려 들어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마지막 주일예배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기도 외에는 이를 수 없다. 방언기도 많이 하라’고 하셔서 밤이 깊

도록 방언기도를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빛 가운데서 목사님이 걸어 나오시더니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는데, “네가 바라는 실상이 이루어졌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꽃으로 만든 판이 목사님과 저 사이에 있었는데 포옹하다보니 꽃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보니 방법을 가르쳐주시는데 너무도 쉽게 제 입에서 “천사야 이것 좀 고쳐줘.” 했더니 천사 둘이 와서는 예쁘게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70년여 살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을 보시고 제 죄를 용서해주시고 한번만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미천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오라 할 때까지 제가 사는 동안 간증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렵니다. 하나님께 감사감사 드리며 목사님과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로교구 정지혜 권사

:: 부르심의 소망 ::

회개의 열매

1903년 하나님께서는 원산을 기점으로 평양 대부흥(1907년), 백만인 구령운동(1909년) 등 조선에 유례없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일만 되면 성도들은 뺨뺨하게 다려진 흰옷을 입고 교회로 몰려들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정결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서양 교회들로부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애칭을 얻은, 결코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1937년 일본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이 신이라고 섬기는 일본천황에게 복종한다는 행위로,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당시 예배당 안은 총칼로 무장한 일본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신사참배를 거부할 경우 바로 총살당할 수 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교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감리교와 성결교가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38년 9월 10일, 신앙의 마지노선이었던 조선예수교장로회마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외 몇 십 명만이 우상숭배를 거부했을 뿐,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를 찾아 허리를 90도로 굽혀 참배했고,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국방헌금을 건어서 일본에 기관총, 전투기 등을 헌납했

습니다. 이렇게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된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마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의 공격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사를 거부하면서도 명절 때마다 시부모님을 찾아보였지만 십 수년 동안 갖은 인격모독과 함께 문전박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사를 거부한 모든 성도들이 겪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에서 내쫓긴 어머니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과 목사님은 서로 부동켜안으며 하나님 앞에서 묵 놓아 올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과 순종 앞에 닥친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교단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수장이 나오게 해달라는 목사님의 기도는 결코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맞서 싸운 어머니들의 철저한 순종과 희생으로 드러진 한 맺힌 절규이

자 명분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초석 목사님을 따르는 예수중심교회 2세대, 3세대 젊은이들을 세계 각 분야에 높이 올리시며 요셉 같이, 다니엘 같이, 모세와 다윗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세대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고난이 계속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반드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 없는 훈련은 없다.” 고난이 아닙니다. 과거 순교자들의 희생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조선에 엄청난 부흥을 주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순종과 희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특별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훈련 받으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훈련을 마친 후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군사로 당당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레홀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단11:32).
박영신 집사
rubyday0@naver.com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편)**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넘치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